중국은 지금

예상치를 상회한 미중 제네바 합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China Equity Analyst 박주영 jyp1ark@kiwoom.com

SUMMARY

미중 제네바 회담 결과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는 기존 165%에서 5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향후 펜타닐 관련 추가적인 협상으로 인해 20% 부문의 관세 추가 인하 가능성도 존재하나, 상호관세 중 24%를 90일간 일시 유예하는 만큼 상승 리스크도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화권 증시가 4/2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전 수준을 회복한 만큼 과도한 낙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며 AI 등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중심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미중 제네바 합의 예상치 상회

미중 제네바 회담 결과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5월 14일부터 90일 간의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는 기존 165%(트럼프 1기 20%+펜타닐 20%+상호관세 34%+보복관세 91%)에서 50%(트럼프 1기 20%+펜타닐 20%+상호관세 10%)로 하락할 전망이다(PIIE 기준). 향후 펜타닐 관련 추가적인 협상으로 인해 20% 부문의 관세 추가 인하 가능성도 존재하나, 상호관세 중 24%를 90일간 일시 유예하는 만큼 상승 리스크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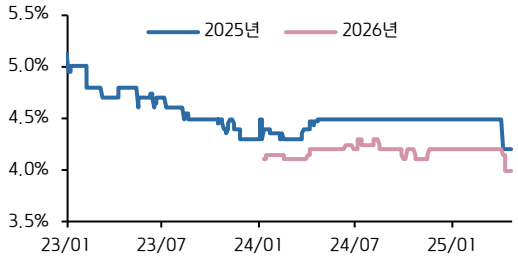
여전히 높은 미국의 대중 관세는 중국 경기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나 4월 초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중국의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약화됐으며, 재정 등 부양 강도가 일부 완화 혹은 지연됨에 따라서 정책 기대감이 완화될 가능성에 유의가 필요하다.

5/12 예상치를 상회하는 협상 결과로 인해 홍콩항셍은 3%, 항셍테크는 5% 상승했다. 특히 그간 관세 우려가 컸던 가전, IT 등 업종의 주가 상승 폭이 컸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인하 가능성 등 기대감으로 인해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화권 증시가 4/2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하고 특히 지난 트럼프 1기때처럼 일시적으로 협상 결렬 가능성도 존재한 만큼 과도한 낙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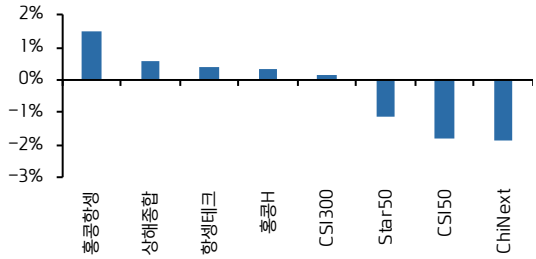
개선된 투자심리 속에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AI 등 모멘텀 보유한 종목 중심으로 주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금주부터 중국 플랫폼 기업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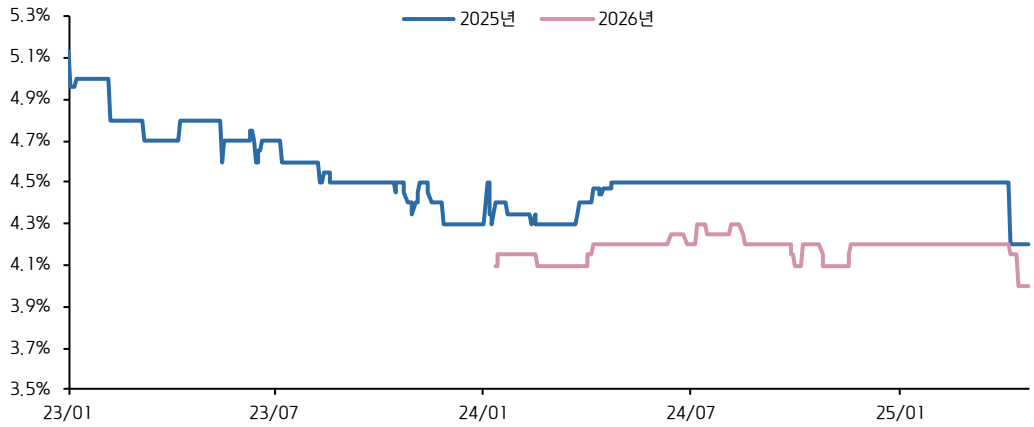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4/2~5/12 중국 주요 지수 주가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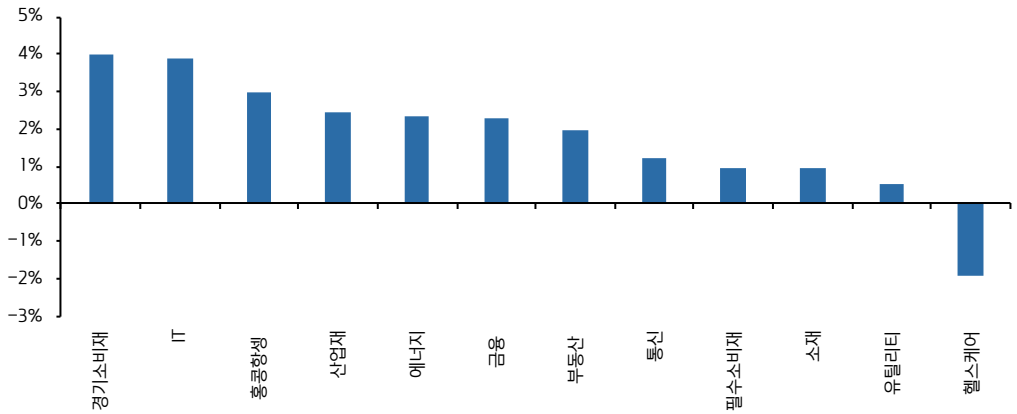
자료: Wind, 키움증권 리서치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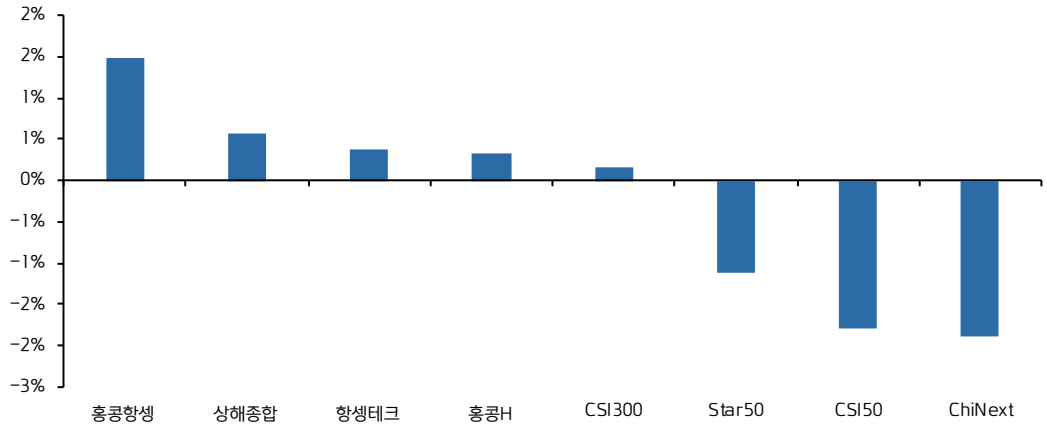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5/12 홍콩증시 업종별 수익률



자료: Wind, 키움증권 리서치

4/2~5/12 중국 주요 지수 주가수익률



자료: Wind,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